

## 四象藥物 劃分原理에 對한 分析

崔松男\*

“藥乃局限于人”은 李齊馬先生의 獨特한 藥物觀이다. 이로 후세동료들은 모종약물은 모종질병의 치료와 예방작용이 있고 어떤 약물은 치료작용이 없을뿐만아니라 도리어 엄중한 부작용이 있는 유기체가 약물에 대한 선택성을 사상인의 臟局強弱陰陽分布, 氣質特點, 體質不同에서 생성되는 特殊現狀으로 이해하고 藥物을 象에 歸結시켜 象에 따라 약을 쓰며 辨證施治, 隨證加減의 독특한 用藥紀律을 提示하고 藥物을 太陽人藥, 太陰人藥, 少陽人藥, 少陰人藥으로 劃分하였다. 四象약물의 劃分은 1928년에 張鳳永의 著書 [東醫四象新編]에서 처음으로 278종을 記載하였는데 太陽人 藥物 12종 太陰人 약 111종 少陽人약 83종, 少陰人 약 72종으로 構成되었다.

筆者는 그 劃分の 원리를 추구하려 書籍記載의 考證과 東方傳統藥物的 四氣 歸經으로 統計分析하여 初보적인 劃分원리를 理解하였는바 아래와같이 敘述한다.

### 一. 四象藥物的 書籍記載 考察

四象藥物的 書籍記載를 考察하여보면 [東醫壽世保元] (李齊馬著1901年)에 張仲景傷寒論少陰人經驗方23개를 運用했는데 81종의 藥物이 包括되고

少陰人新定方2 4개에는 藥物이 36종이 包括되어 모두 86종으로 少陰人藥物이 있고 張仲景少陽人經驗方 10개를 運用했는데 66의 藥物이 包括되고 少陽人新定方17개에는 34종이 包括되어 모두 81종으로 少陽人藥物이 있으며 張仲景傷寒論太陰人經驗方 4개를 運用했는데 10종의 藥物이 包括되고 唐,宋,明經驗方 9개에는 41종이 包括되어 있으며 太陰人新定方 24개에 45종 藥物을 包括하면 重複되는 藥物을 제외하고 71종의 太陰人 藥物이 있고 本草에서 運用한 太陰人方 單方 10개 11종 藥物이 包括되고 新定方 2개에 10종의 藥物이 包含되어 모두 14종으로 太陽人 藥物이 記載되어 있다. [東醫四象 新編](張鳳永著1928年)에는 太陰人藥物 111종 少陰人 藥物 72종 少陽人藥物 83종 太陽人藥物 12종이 記載되어 있다. [東醫四象大典](朴尙彦澤編 1976年)에는 少陰人藥物 139종, 少陽人 藥物 91종, 太陰人 藥物 128종, [東醫四象新編]에는 278종, [東醫四象大典]에는 376종으로 점차 增加되었다.

### 二. 東方傳統藥物的 四氣, 歸經별 통계분석

서적기재에 四氣, 歸經이 명확한 少陽人 藥物 76종, 少陰人 藥物 74종, 太陰人 藥物 98종, 太陽人 藥物 10종을 통계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少陽

\* 中國 延邊 朝鮮民族醫藥研究所

이 논문은 제2회 사상의학 국제학술대회 제출 논문임.

人 藥物 76종 가운데 寒涼性藥物이 52종 68.4%를 차지하고, 脾胃腎膀胱에 作用하는 藥物이 73종 96%를 차지한다. 少陰人 藥物 74종 가운데 中性溫性藥物이 50종 67.5%를 차지하고 脾胃腎膀胱에 作用하는 藥物이 60종 83.3%를 차지한다. 太陰人 藥物 98종 가운데 溫熱平性藥物이 62종 63.2%를 차지하고 肺肝心에 作用하는 藥物이 75종 72.8%를 차지한다. 太陽人 藥物 10종 가운데 寒涼平性藥物이 7종 70%를 차지하고 肺肝에 作用하는 藥物이 5종 50%를 차지한다.

상술한 통계분석을 四象臨床의 熱則寒治 寒則熱治와 小則補 大則瀉의 治療原則으로 解析하면 少陽人은 稍偏陽人으로서 溫性體質에 속하므로 “溫則涼治”해야 한다. 少陰人은 稍偏陰人으로서 涼性體質에 속하므로 “涼則溫治”해야 하며 臟局特點은 “腎大脾小”이므로 “瀉腎補脾” 해야 한다. 太陰人은 多偏陰人으로서 寒性體質에 속하므로 “熱則寒治”해야 하며 臟局特點은 “肝大肺小”이므로 “瀉肝瀉肺”해야 한다. 太陽人은 多偏陽人으로서 熱性體質에 속하므로 “熱則寒治”해야 하며 臟局特點은 “肺大肝小”이므로 “瀉肺補肝”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술된 少陽人 藥物이 寒涼藥物과 脾腎에 作用하는 藥物을 爲主로 構成되고 少陰人 藥物이 溫熱藥物과 脾腎에 作用하는 藥物을 爲主로 構成되고 太陰人 藥物이 溫熱藥物과 肺肝에 作用하는 藥物을 爲主로 構成되고 太陽人 藥物이 寒涼과 肺肝에 作用하는 藥物을 爲主로 構成된 것은 各象治療原則과 體質屬性에 符合된다.

### 三. 結 論

1. 四象藥物의 劃分은 陽人은 天稟多熱體質, 陰人은 天稟多寒體質로서 陽人에게는 熱證이 많고 陰人에게는 寒證이 많아 陽人은 寒治하고 陰人은 熱治하는 治療原則에 根據하였으므로 “寒則熱治

熱則寒治”는 四象藥物을 劃分하는 基本原則의 하나이다.

2. 四象藥物劃分은 “人稟臟理”가 “肺大肝小者太陽人, 肝大肺小者太陰人, 脾大腎小者少陽人, 腎大脾小者少陰人”이므로 小臟器의 病變은 各象病源이기 때문에 太陽人은 肝熱 太陰人은 肺寒 少陽人은 腎虛 少陰人은 脾寒證에 쉽게 걸리는 臨床反應에 根據하여 太陽人에게는 瀉肺補肝藥物, 太陰人은 瀉肝補肺藥物, 少陽人은 瀉腎補脾藥物 少陰人은 瀉腎補脾藥物로 疾病을 治療한다. 그러므로 “大則瀉治, 小則補治”는 四象藥物을 劃分하는 또하나의 基本原則이다.

3. “熱則寒治, 寒則熱治”가 四象藥物을 劃分하는 絶對的原則은 아니다. 藥物의 作用趨向과 補瀉作用에 根據하여 陽人도 溫熱藥物을 慎用할수 있고 陰人도 寒涼藥物을 慎用할 수 있다. 그러나 太陰人이 寒涼藥物을 쓸 경우 반드시 瀉肝補肺藥物이어야 하고 太陽人이 溫熱涼藥物을 쓸 경우 반드시 瀉肺補肝藥物이어야 하며 少陽人이 溫熱藥物을 쓸 경우 반드시 瀉脾補腎藥物이어야 하고 少陰人이 寒涼藥物을 쓸 경우 瀉腎補脾藥物이어야 한다.

4. 平性藥物은 藥物의 作用趨向에 根據하여 各象에서 運用할 수 있다.

5. 四象藥物을 混用하지 못하는 것은 絶對的原則이 아니다. 李齊馬先生은 『東醫壽世保元』에서 張仲景傷寒論經驗方中, 少陰人方23個, 少陽人方10個, 太陰人方4個, 唐·宋·明時期太陰人方9個를 引用했는데 其中 太陰, 少陰, 少陽三象通用藥物이 人蔘, 甘草, 黃芩, 麻黃, 芒草, 新曲, 朱砂, 茯苓, 半夏 등이 있고 少陰, 太陰通用藥物이 20種, 少陰, 少陽

通用藥物도 26종이나 된다.

6. 四象藥物의 屬象을 判斷하는 원칙은 東方傳統醫學을 총화한 結晶으로서 東方傳統醫學의 四氣, 歸經은 四象藥物을 劃分하는 臨床基礎이므로 이 原則을 運用하여 이미 規定된 四象藥物외의 速

成도 대체로 劃分 할 수 있다.

1996年 4月 30日